



혁신적 방법론 ‘오픈랩(Open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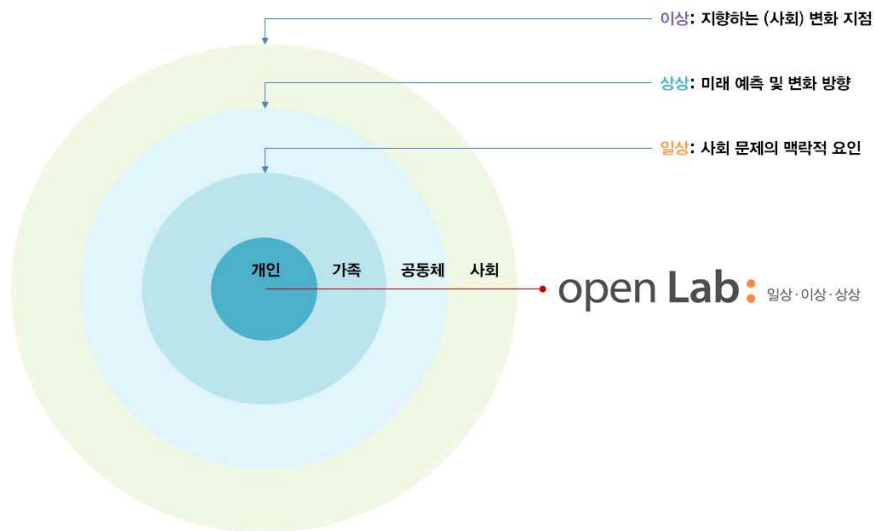
사회혁신 키워드 도출 방법론

- ▶ 오픈랩의 운영조직화 과정
- ▶ 오픈랩 운영 방법론
- ▶ 오픈랩 키워드 도출 방법론

1. 오픈랩의 운영조직화 과정

- 오픈랩Open lab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해 실험과 혁신, 연대가 교직되는 활동 현장에서 포착된 새로운 패턴이나 변화를 예고하는 미세한 진동들을 감지하여 사회 변화를 위한 역동적인 지식정보를 파악하는데 주목함.
- 정교한 논리와 개념으로 텍스트화된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보다 수많은 층위에 내재된 경험들의 내러티브와 암묵지의 수집과 해석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이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요소들을 키워드로 사회 언어화하는 작업으로 진행됨.
- 파일럿 개념으로 진행된 오픈랩Open lab은 불특정 대중, 즉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오피니언 리더 그룹과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활동

- 가·시민 커뮤니티 그룹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들의 내러티브와 현실 그대로의 정보에서 숨은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 중요하여 큐레이션 개념을 도입함.
- 큐레이션(curation) 은 최근 수집, 구성하는 대상에 질적인 판단을 추가해서 가치를 높이는 활동³²⁾, 콘텐츠를 발굴하고 재가공하여 공유하는 행위³³⁾ 등으로 사용되면서 사용자 니즈를 발견하여 서로 ‘원하는 것’을 제시하는 형태³⁴⁾³⁵⁾로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고 있음.
 - 이를 위해 개개인 또는 개별 커뮤니티들을 찾아내는 과정부터 조사대상자들의 살아있는 지식정보를 수집·발굴·해석·유통하는 과정을 설계하면서 연구진들의 역할에 큐레이터 활동을 중심으로 설정함.
 - 한국 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일상), 예측 가능한 또는 대비해야 할 문제들은 무엇인지,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이상/상상), 이 세 가지 질문을 열개로 삼아 개인적(personal), 공적/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봄.



32) 스티븐 로젠바움, 큐레이션, 2010. 9

33) 사사키 도시나오, 큐레이션의 시대, 2012.3, LGERI, 소셜 마케팅 변화 예고, 2012.5

34) 이상우(2013),협동형 지식콘텐츠 생성을 위한 디지털 큐레이션 기반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설계와 구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업기술경영대학원, 2013

35) 최근 정보량이 많아지면서 큐레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산물 큐레이터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큐레이션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 큐레이터로 참여할 연구진들의 활동 영역은 크게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cological, Political)와 같이 시민사회, IT와 기술, 경제와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 환경과 도시재생, 청년문제, 정치적 자유권 등을 주제로 대안적 가치를 지향함.
- 큐레이터들은 오픈랩의 일상·이상·상상으로 함축된 화두를 매개하는 발신매체이자 관심그룹들을 네트워킹하는 허브가 되어 독자적인 lab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의 지식정보를 발굴·수집함.
- 지식정보, 데이터를 큐레이션하는 과정에서 큐레이터의 지나친 주관적 해석을 경계하고 연구의 객관성을 담지하기 위해 전문연구자와 연구자그룹을 총괄큐레이터와 큐레이터로 선임하여 판단의 쓸림 현상을 경계함.
- 최근 빅데이터 큐레이션이 사용자의 일상생활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패턴을 분석해 숨은 니즈를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듯,³⁶⁾ 총괄어드바이저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lab에 참여하면서 수집한 정보데이터를 분석하며 공통된 패턴과 니즈를 발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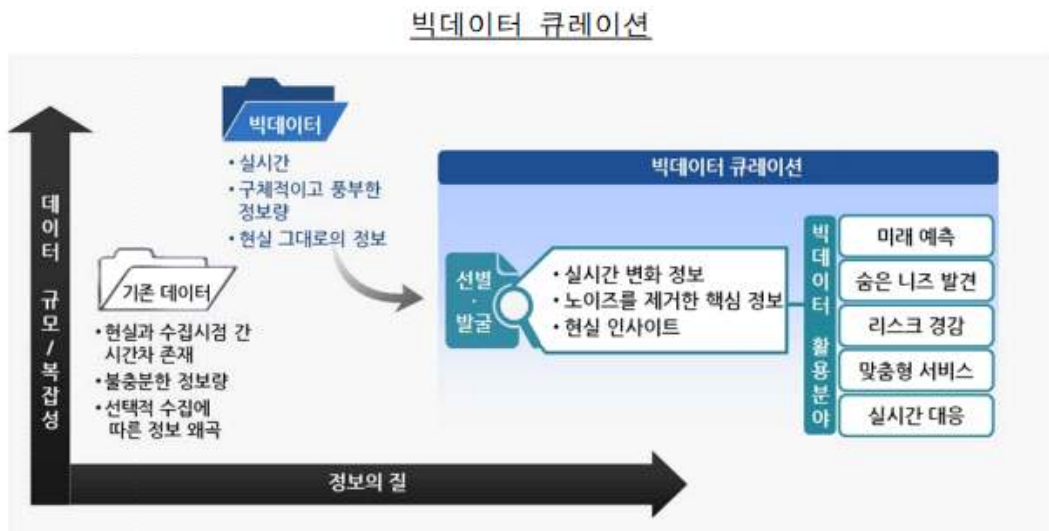


그림 3-1. 출처: 삼성경제연구소(2013), 기업의 新경쟁력, 빅데이터 큐레이션

36) 박성민 외, 기업의 新경쟁력, 빅데이터 큐레이션, 삼성경제연구소 CEO인포메이션, 2013.4.10.

- 총괄큐레이터와 총괄어드바이저는 월 1회 진행되는 전체회의와 비상시 회의를 통해 큐레이터의 주제와 모임 방법론을 조정·지원함. 큐레이터(9명)는 각자 관심 주제와 모임 진행 방식, 참여자 섭외/선정 기준에 대한 세부 방법론을 설계함. 전체회의와 큐레이터간 경험 공유, 피드백을 통해 오픈랩 모임 방법론을 설계하기 위해 설계 과정을 프로세스화하는 실험 진행.
- 각각 랩을 운영할 때 어떠한 모임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통상적으로 6단계의 과정을 거치나 선형적 진행을 의미하진 않음. 외부 상황(모임 참석자 성향, 모임 주제 등) 등에 따라 지그재그 라인으로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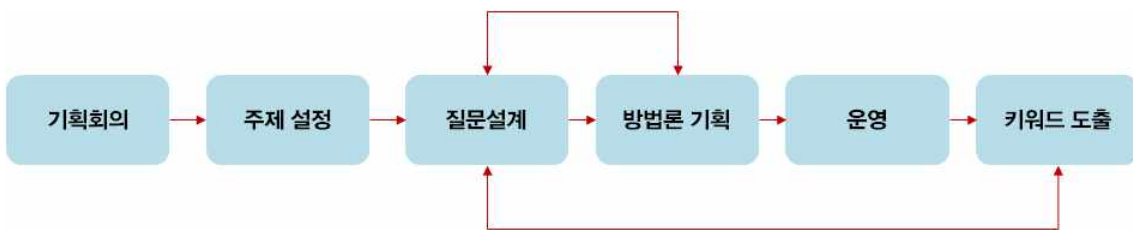


그림 3-2. 오픈랩 운영 과정

- 기획회의에서는 전체 회의와 개별 회의를 통해 활동현장에서의 이슈 또는 주요한 일상문제들에 관해 논의 후 모임주제 1차 선정함. 기획회의를 통해 선별된 주제를 다각도로 검토한 후 연구방향을 설정
- 오픈랩 모임의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전문가들과 사전 인터뷰 또는 세미나를 통해 질문 설계. 시범 운영을 통해 질문을 수정/보완함. 평균 3시간 분량으로 진행될 모임의 프로그램 성격 및 진행방향을 기획함. 운영 과정속에서 수정·보완됨. 오픈랩의 본격 실행 단계로, 개발 실행 과정에서는 1단계부터 4단계 과정을 반복하면서 모임의 질 향상
- 오픈랩 연구모임에서 나온 담론들을 정리, 분석하여 큐레이터들이 키워드로 정리함. 관련 통계와 데이터, 이론들을 조사하여 해당 키워드에 대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함. 키워드의 사회적 검증과 지지를 받기 위해 시민의 제행사 ‘오픈테이블’과 연계 진행할 예정이며 키워드 설명 원고작업은 큐레이터를 비롯, 해당 전문가와 공동으로 진행함.

- 오픈랩 연구모임은 대략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되며, 시범 운영을 통해 진화하고 있는 추세임. 모임을 운영할 때 참여자 전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참석자들간에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초점을 둠.



그림3-3. 오픈랩 운영 유형

2. 오픈랩 Open lab 방법론

1) 해외 사례 분석

■ 해외사례: BMW-구겐하임 랩³⁷⁾

- BMW-구겐하임랩(이하 BMW랩)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와 확대 지향 도시 정책이 낳은 문제들을 시민 참여와 집단 지성으로 해결하기 위

37) 정상훈 외(2013), 「시민참여형 공공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국내의 사례조사연구」, 서울연구원에서 III. 시민 참여형 공공정책 해외 사례분석을 인용함.

해 제안된 프로젝트임.

- 통상적으로 도시와 관련된 정책 결정은 도시계획 전문가, 건축가, 학계, 정부관계자들 등 일부 제한된 전문가 그룹들이 참여하는 구조임. 전문가들이 수립한 정책을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이 이해하거나 의견을 말하는 수준의 ‘참여’가 이뤄짐.
- BMW랩은 기존 논의를 주도한 전문가그룹 뿐만 아니라 도시에 살아가는 실제 주인인 시민들이 도시 문제와 도시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공론장을 설계함. 시민 참여를 중심에 둔 BMW랩은 시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팝업 공간을 설치하고, 디자인 방법론과 퍼포먼스, 문화 기획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툴을 개발·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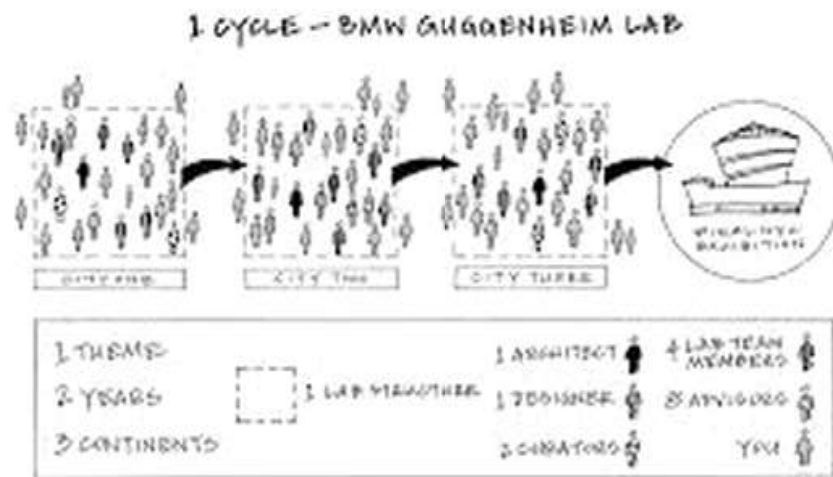


그림3-4. BMW-구겐하임 LAB 운영체계

- 큐레이터와 함께 랩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형식에 대한 기획은 예술, 공공디자인, 도시공학 등 전문가들이 담당함. 시민단체와 학자들은 랩의 연구내용이나 주제를 기획할 때 협력자로 참여함.
- BMW랩은 프로젝트의 베이스캠프이자 거점 공간을 구현함. 한시적으로

사용할 팝업 공간을 조성하고 그 공간을 거점으로 공연, 워크숍, 포럼, 상영회, 이벤트, 퍼포먼스 등을 진행함.

<표3-1. BMW-Guggenheim Lab>의 도시별 특징 및 주요 사업

도시	도시LAB의 고유 테마/프로젝트	프로그램 특징	장소 특징
뉴욕	자본주의/사회주의 경제, 도시성 등의 키워드가 부각됨 도시고유프로젝트: 없음	강연, 워크숍 등 수동적 활동 위주, 프로그램 성격이나 특징을 기준으로 프로젝트 분류	traveling toolbox와 구겐하임미술관을 중심으로 진행
베를린	자전거, 유희공간(활용), 환경 등의 키워드가 부각됨 도시 고유 프로젝트: Dynamic Connections map, Free space Berlin, Make space	투어, 활동형 워크숍 등 참여와 활동성 강화 도시 고유의 테마 강조	traveling toolbox 활용 온라인 참여 개념 등장
움바이	공공성과 프라이버시, 인구와 복잡성, 지역성 등의 키워드가 부각됨 도시고유프로젝트 : Staked Population Index 등	이벤트, 투어, 활동형 워크숍 등 참여 및 활동성 강조 도시 고유 테마와 프로젝트 강조	별도의 lab 건물 설치 lab 중심성 약화: 도시 곳곳에서 프로젝트 진행

출처: 정상훈 외(2013), 101쪽

-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 기획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토론, 좌담, 원탁토의, 강연 등 문제해결을 위한 기존 커뮤니케이션도 활용함. 토론회나 좌담의 경우 참여 패널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학자, 기획자, 활동가 등)만 부르지 않고, 주제에 관심있는 심리학자, 예술가, 경제학자, 관료 등 다종의 그룹을 섭외해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려 했다는 점이 특징임.
- BMW랩의 가장 큰 특징은 ‘신진학자’ 또는 ‘신진 그룹’들을 등용시키는데

주력함. 랩에서 다뤄진 의제나 아이디어들이 실제 정책 현장에 적용되지 않은 한계도 있지만, 뭄바이랩의 경우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주제의 경우 논의 과정부터 정치인 또는 행정가들을 패널로 참여시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모색함.

- 뉴욕, 베를린, 뭄바이 랩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지진 않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의 진행프로세스에서 연구과정부터 민관거버넌스의 오픈 커뮤니케이션으로 설계한 사례는 주목할 만함.

■ 해외사례: 리빙랩Living Lab³⁸⁾

-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혁신시스템 발전과정에서 등장한 리빙랩은 사용자가 적극적인 혁신주체로 기능하는 새로운 혁신네트워크의 의미를 갖고 확산된다는 점이 특징임.
- EU차원에서 수요기반 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6년 11월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를 결성, 2013년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도 리빙랩 네트워크에 참여함.
-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 프로젝트인 리빙랩은 기술에 대한 탐색과 함께 인문사회과학자, 과학기술자, 시민사회조직, 지역 정부 등 다주체들의 참여 구조를 만들어 사회 문제에 대한 탐색을 병행함.
- “지역과 시민이 직면한 사회 문제를 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리빙랩은 아이디어 발현(개념화)→ 의제 설정(구체화) → 실제 활동 및 목표 달성(실행) → 피드백의 4단계 프로세스로 설계.

38) 성지은 외(2013), 「리빙랩의 운영 체계와 사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10.1.제127호를 참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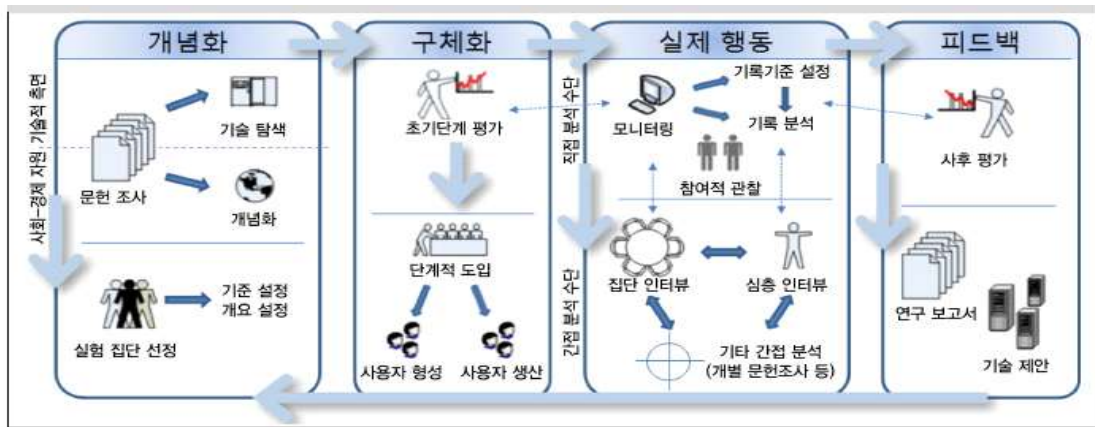


그림 3-5. 리빙랩의 운영 단계, 출처: 성지은 외, 20쪽.

- 리빙랩의 활동사례를 살펴보면, 브라질 Habitat Living Lab의 경우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학술 연구와 기술 혁신 연구가 병행됨.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대학, 비정부기구(ONGs), 자금 지원 기구(CAPES), 시 정부가 참여하여 주거환경 개선 연구를 함.
- 해당 지역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장인 BEM MAIOR포럼을 만들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조사하면서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인 Living Well을 설계·시행함. 리빙랩의 활동결과 환경친화 벽돌, 가정용 태양전지 패널 등이 개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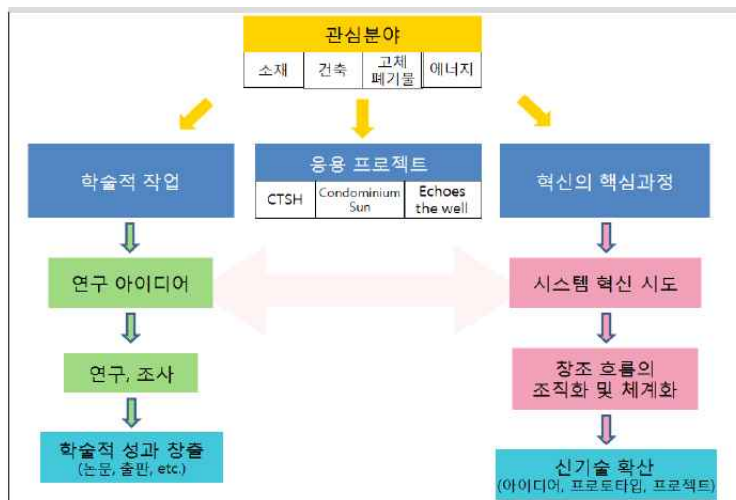


그림 3-6. 브라질 Habitat Living Lab의 운영 사례 출처: 성지은 외, 28쪽

- 리빙랩은 기존 협력 연구·다학제적 연구와 구별되는 현장지향성, 사회문제 해결을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 NGO, 미디어 등 다양한 주체가 각자의 전문성과 지식을 갖고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됨.
- ‘사용자 중심’과 ‘함께(co-)’의 개념을 리빙랩의 활동 원리이자 정체성이 되어 다학제적 연구팀과 사용자 공동체 등이 집단 작업과 지식 공유를 통해 새로운 지식, 제품, 서비스를 개발 또는 확산시킨다는 점이 특징임.
- 리빙랩Living Lab은 탈추격 혁신, 수요지향적 혁신, 지역혁신,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생태계 형성 지원,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등 최근 혁신정책의 경향이 반영됐다는 점이 특징임.
- 지속가능성, 삶의 질(고용, 안전, 접근성 등)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연구 활동으로 사용자의 통찰력을 포착하고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운동이라 일컬어지고 있음.
- ‘살아 있는 실험실’이라는 명칭처럼 서비스 사용자들이 R&D&I(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의 참여 주체가 되어 진행됨³⁹⁾. 리빙랩의 차별화된 지점은 사용자 주도, 협업을 토대로 한 열린 혁신, 리빙랩 참여자 간 네트워크, 실제 생활real life에 적용가능한 테스트 기획·실행에 있음.

■ 시사점

- BMW랩은 지역적 차원과 세계적 차원에서 도시 이슈들을 탐색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에 중점을 두며 현장지향형 또는 실천지향형 연구와 도시 문제 체험 이벤트, 문제해결형 사회 실험을 시도함.

39) 헬싱키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서 작성한 <핀란드 도시 개발 모델 아라비안란타: U-City에서 리빙랩으로>를 참고함.

http://fin.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3611&seqno=668138&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 다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자, 시민활동가, 공무원, 디자이너, 기획자들이 결합하여 도시 문제를 일반 시민들에게 환기시킨 액션 리서치 성격의 참여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됨. 세 도시(베를린, 뉴욕, 뭄바이)에서 시민 참여형 연구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나온 결과물을 토대로 ‘도시트렌드 100’을 선정함.
- 최근 사회혁신 정책의 경향을 반영한 리빙랩은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 사용자로서 시민을 접근한다는 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전 단계에서 시민사회, 지역정부, 학계, 기업 등 다주체들이 문제 발굴 등 현장 연구를 진행하는 점, 사회적 맥락과 일상생활을 고려한다는 점이 참고할만함.

2) 오픈랩의 활동 원리

■ 오픈랩의 활동 원리: 네트워크 리서치와 미시적 공론장

- 오픈랩의 운영 방향은 현장지향성과 수요지향성⁴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지점임. 큐레이터와 주제(콘텐츠)가 살아있는 노드로 관련 활동(연구, 저작, 운동, 프로젝트, 이벤트 등)을 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사람들을 선정하는 기준점이자 연결망으로 작동함.
- 주제와 관련된 연구, 업무, 프로젝트 또는 단체 활동을 한 경험자들, 해당 주제와 생활세계가 연관된 개개인들이나 커뮤니티를 조사·발굴·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참여자들을 고정된 역할로 묶어두지 않고, 정책 소비자이자 제안자로, 오픈랩 공동연구자이자 네트워크로 역할을 열어둠. 이렇듯 연결, 매개와 중개를 활동 원리로 두는 오픈랩은 네트워크의 속성처럼 늘 진화해가는 네트워크 리서치(network research⁴¹⁾) 방식을 취함.

40) 각 주제별로 열린 오픈랩에 참여한 이들은 능동적 발화자다. 큐레이터들은 참여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으며 그들의 니즈(needs)와 사회 갈등, 고민을 파악해가며 이를 반영한 키워드를 발굴한다.

41) 네트워크 리서치는 2015년 3월부터 진행된 조한혜정 명예교수와 엄기호박사가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각자도생’ 프로젝트에서 밝힌 연구방법론 ‘클라우드 네트워크 리서치’에서 차용한 말이다. 현장 활동가들을 연구

- 큐레이터들이 열어둔 오픈랩에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주요 동인動因은 큐레이터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주제(콘텐츠)에 대한 개인적 관심사였음. 외부 참여자들은 오픈랩 큐레이터들⁴²⁾의 활동성과 지향성을 보면서 오픈랩을 신뢰집단으로 인식하게 되어 내밀한 얘기들을 꺼내놓음.
- 기존 정책 생산 그룹에 배제된 개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발제-토론이나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 구조는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사회적 발언권을 획득하는 거시적 공론장인 반면, 키워드를 매개로 한 오픈랩의 담화 구조는 비전문가들도 발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된 미시적 공론장으로 기능함.
- 개방성을 중심에 두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한된’ 개방성이라는 한계가 있음. 불특정 다수가 아닌, 주제와 연관된 고민이나 활동 경험이 외화된 개인들이나 커뮤니티를 참여자 대상으로 고려함. 전문적 지식과 일상적 지식에 선별적 우위를 두지 않고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초점을 둠.
- 공적인 담론장과 사적인 대화모임의 경계 지점에서 출발한 오픈랩은 물리적 공간으로서가 아닌, “공사의 경계를 둘러싼 담론의 정치가 행해지는 공간”으로 작동하고자 함.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구호가 증명하듯 미시적 삶과 거시적 구조는 구분될 수 없음. 삶과 경험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 맥락들을 살펴보는 장으로 기획함.
- 2010년부터 영국 통계청은 ‘삶의 질’을 조사하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Measuring National Well-being(MNWB)’ 연구를 진행하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전국적으로 175개의 토론 이벤트를 개최함. MNWB 웰빙 측정틀은 국가 웰빙을 이해하는데 개인의 관점에서부터 사

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주제 관련 사람들을 발굴하는 큐레이터로 소개/활동한다는 점, 연구모임이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어 주제에 관심있거나 초대받은 이들이 적극적 행위자와 발화자가 되어 연구에 참여한다는 점, 청년 당사자 연구원들은 노드가 되어 각자 네트워크를 연결해 간다는 점이 오픈랩 프로젝트와 공통점이다. 그래서 ‘각자도생’ 연구프로젝트가 명명한 방법론의 ‘클라우드 네트워크 리서치’를 차용했다.

42) 오픈랩을 기획한 총괄어드바이저와 총괄큐레이터, 큐레이터들 등 11명을 지칭한다.

회 전반까지 어떤 영역이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하게 다룸. 개인적 웰빙과 그 개인적 웰빙을 변화시키는 요소, 그리고 맥락적 요인을 통해 국가 웰빙을 파악함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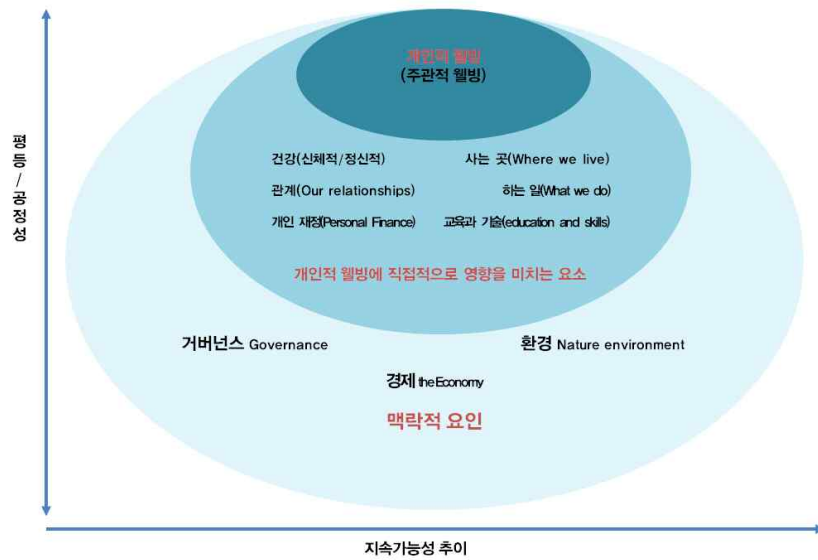


그림 3-7. 영국의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측정틀

- 영국 MNWB 웰빙 측정틀이 개인의 행복한 삶을 근거지로 두고 사회적 상황과 맥락, 영향, 변화 요인들을 다루며 '관계성'에 주목했듯, 오픈랩의 논의틀 역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지점에서 사회 문제를 접근하려고 함. 이를 위해 내러티브 연구 방식을 차용함. 실제 사회복지, 아동복지, 여성학, 교육학, 유아교육, 평생교육이나 간호학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내러티브 연구들이 활용됨.⁴⁴⁾ 내러티브 연구는 사회의 실제와 개인의 삶에 대한 통섭의 성찰을 창출하는 새로운 연구패러다임⁴⁵⁾으로 등장함. 이러한 연구 방식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개인들의 삶에서 출발하여 국가, 사회, 민족 등 거시적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 서사 구조를 기획함.

43) 이희길 외, 국민 삶의 질 측정 2013, 2013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4권, 50-51쪽. 참고.

44) 이희길 외(2013), 참고.

45) 손희연(서울교육대), 내러티브의 철학과 현장,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박이정, 2014. 241-250쪽. 참고.

3. 오픈랩 키워드 도출 방법론

1) 오픈랩 키워드 도출 방법론

■ 오픈랩의 공통 방법론

- 시민이니셔티브, 도시의 재구성, 기후변화와 삶터·삶의 방식, 기술과 사회, 치유와 복지, 일상과 가족, 사람과 협동, 공공의 재구성, 청년, 한반도 경제 등 10개 주제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35개 오픈랩이 운영됨.
- 오픈랩의 일상·이상·상상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전제하면서, 개인적(personal), 공적/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함. 한국 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일상), 예측 가능한 또는 대비해야 할 문제들은 무엇인지,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이상/상상) 등 일상·이상·상상, 이 세 가지 질문을 기본 골격으로 세우고 모임을 진행했으며 찬반 구도의 논쟁보다는 경험에 기반한 내러티브의 교류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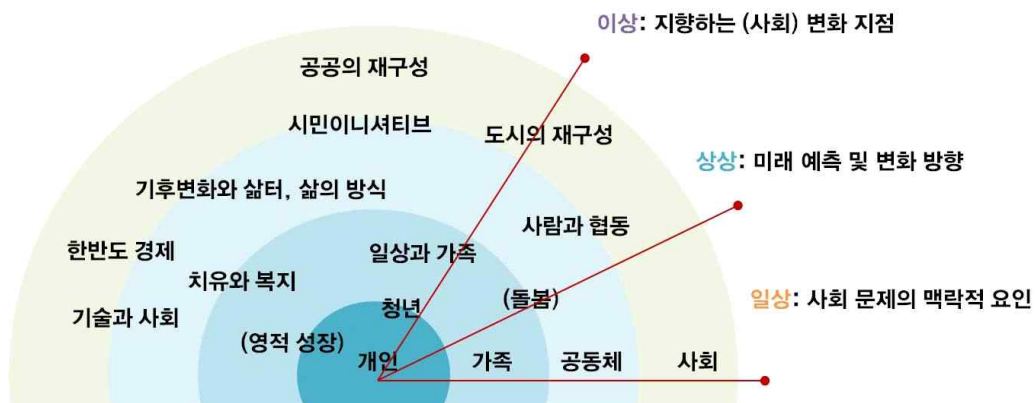


그림 3-8. 오픈랩의 10개 주제랩

- 각각 10개 주제로 열린 오픈랩은 다뤄질 논의 방향에 따라 크게 ▲의제 지형 파악 ▲문제 발굴&미래 예측 ▲솔루션 모색 등의 성격으로 구분되어짐. 해당 주제에 대해 전문 연구나 실천 활동을 펼치는 전문그룹과 주제와 연관된 개인(당사자) 또는 커뮤니티들의 관심그룹 등 대상층의 주제 이해도에 따라 기존 커뮤니케이션 툴tool을 적용·변형. (오픈랩의 ‘열린 Open’ 공론장은 새로운 공적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확장하고, 사회적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방법론이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개발이 주된 활동은 아님.)
- 주제와 관련된 의제 지형 또는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주제들을 발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그나이트 방식을 변형한 다주체 PT Party 형태를 기획함. 누구나 접속할 수 있고, 토론/심포지엄의 방식에 익숙치 않은 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파티party’라는 단어를 선택. 또 비주얼싱킹 방법론인 레고시리어스플레이(LSP)를 도입하여 형식(LSP)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 참여한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서 내용(주제)을 환기시켜보는 장 마련.
- 심화된 내용을 도출하는데 인터뷰(일대일, FGI)와 세미나, 컨퍼런스 방식을 채택함. 전통적 방식이지만 제한된 시간 내 지식정보를 끄집어내는데 유용함. 기존 발제-토론 방식을 그대로 차용할 경우 구조상 부득이하게 발제/토론자에게만 발언시간이 집중되는 한계점이 있음. 그래서 사전에 핵심 질문을 3~4개로 정리하여 참여자 전원에게 답변을 듣거나, 기조 발제 형식을 취하되 특정 토론자 없이 참여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세금이나 재정, 공적 연금, 국제관계 등에 관한 내용은 전문적인 영역-달리 말하면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있는 주제가 아니었음-이기 때문에 학자, 연구자 중심의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로 진행함. 다만 작년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으로 세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을 때 전문가와 관심그룹(대학원생, 직장인 등)이 함께 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함.

- 파일럿으로 운영한 오픈랩의 목적이 특정한 이슈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 있기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회변화와 예측양상, 사회적 과제를 조망하는데 있음. 오픈랩의 (규정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공감한) 코드로 당사자성, 현장성, 일상성을 설정하고, 누구든 접속하여 정제된 텍스트 언어를 빌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꺼내놓는 방식을 일관되게 진행함.
- 온라인에서 사회적 정체성인 ‘이름’ 대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아이디’를 통해 주제별·관심별 커뮤니티에 로그인하여 카페지기(또는 방장)의 스타일에 따라 게시글/댓글을 작성하고 로그아웃하듯 웹의 ‘참여’ ‘공유’ ‘개방’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플랫폼을 지향함.

표 3-2. 주제별·대상별 운영방법

성격 구분		현상 고찰/ 의제 지형 파악	문제 발굴/미래 예측	솔루션 모색
주 제 의 이 해 도	전문 그룹	이그나이트 세미나 1:1 인터뷰	LSP, 이그나이트 세미나 전문가FGI 5-Question	전문가FGI 컨퍼런스
	관심 그룹	레고시리어스플레이 (이하 LSP) 이그나이트	그룹인터뷰	그룹인터뷰

- “자기 말이 타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응답받는다”는 경험과 “자신이 어떤 장소에서는 긍정되고 있다는 감정”이 교차될 수 있도록 오픈랩에서는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삶과 자기 언어, 경험들을 배려하는 친밀권의 장으로 기획함.
- 친밀감과 내밀한 교류를 위해 커뮤니티 지향의 작은 모임으로 구성하고,

커뮤니티 카페, 프로젝트 실험 공간, 문화 공간 등 주제에 맞는 공간의 정체성을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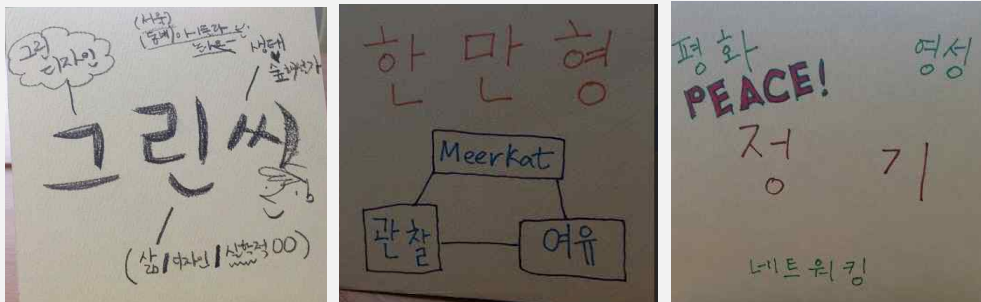
- 학생, 인턴, 시민활동가, 귀농부부, 회사원, 협동조합원,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기획자, 학자, 디자이너 등 다분야 활동가들을 초대하는 방식임. 낯선 이들과의 교류 모임의 성격도 있어서 살롱 문화나 소셜다이닝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모임 전 친교 시간(아이스브레이킹, 선물 등)을 별도로 마련함.

■ 참고사례: 아이스브레이킹 진행 사례

#1_0부터 9까지 현재 자신의 감정 온도를 숫자로 표시하고 이유 설명



#2_세 가지 키워드로 자기 소개하기



■ 정보 수집에서의 방법론

○ 전문가 1:1 인터뷰

- (사전 단계) 큐레이터가 오픈랩의 퍼실리테이터로서 모임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매개도구인 질문을 설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 사전 인터뷰를 진행함.

※ 권미혁 큐레이터 전문가 인터뷰(일부 발췌)

- 일정: 2014.11.27
- 인터뷰이: 배은경(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 섭외 배경: 그동안 여성운동에서 가족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가족’ ‘비혼가족’ ‘가족 구성권’ 등의 키워드 외에 더 발전된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반성에서 시작함.
- 인터뷰 결과 요약
 - 기존 정책이나 운동의 프레임은 ‘시장-국가-시민사회-가족’으로 되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의 삶과 다르며, 여성은 이런 삶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음. ‘개인’이 영위하는 삶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함.
 - 가족 논의는 가족 형태만 이야기했는데, 돌봄과 친밀권, 안정 욕구의 관계에서 가족 구성을 살펴볼 수 있음. 아이와 어른의 관계, 경제적 연대, 맞벌이의 리스크 테이킹, 성인들끼리의 친밀감 등 접근해야 함.
 - 보육이 부모의 역할로 축소되는데 ‘사회적 엄마’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음. “아이는 부모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다”라는 개념으로 보육의 공공화에 대한 논의 필요
 - 관련 전문가 추천: 박OO(노동연구원), 신OO(한림대 교수) 등

- (진행 단계) 큐레이터의 판단에 따라 문헌조사에서 놓쳤던 지점들을 보완하거나, 주제와 관련된 의제 지형, 국내외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1:1 인터뷰를 추가 진행함.

※ 김성환 큐레이터 전문가 인터뷰

- 인터뷰어: 김성환(더 넥스트 대표)
- 인터뷰이: 이경민 연구원(블루스파이럴 공공정책 및 데이터분석팀장)
- 태그어: ‘정치 미래’ 키워드: #시민참여 플랫폼 #전략 #싱크탱크

(인터뷰 일부 발췌)

문: 신뢰 있는 정당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답: 정치 참여의 새로운 방법을 연구했다. (중략) 우리나라는 몇몇 스타 정치인에 확

쏟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영국은 정당 시스템 자체를 신뢰하고 인물보다는 정당 중심으로 투표한다...한국 현실에는 영국 노동당의 정치플랫폼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변화된 인구 구조도 정당에 영향을 끼쳤다. 노동당 전 대표 에드 밀리밴드(Ed Miliband)가 노동조합 중심 당원제의 한계를 벗어나, 당원과 온라인 회원, 대학생, 대학원생 등 당원 구조를 다층화했다.

문: 노동당의 정치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답: (전략)시민들이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 노동당은 동네마다 정책 테이블을 열고 삶의 밀접한 생활 이슈에서부터 크고 작은 국가정책이슈를 토론하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당원들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 청년, 대학생들까지 오픈 해서 누구나 참여한다는 것이다. (중략) 이렇게 곳곳에서 토론해서 제안 된 정책 내용들은 당 정책 연구소에서 만든 정책을 포함해서 매년 11월에 열리는 노동당 정책컨퍼런스에서 발표한다. 제안자 이름 뿐만 아니라 비슷하지만 선택되지 않은 그룹들의 제안까지 보고서에 올라간다.

문: [IT]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는 어떤 형태일까?

답: 미래의 정당 모델은 IT 기술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의 소규모 정당들이나 극우나 극좌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토론 이후 입법 프로세스를 가시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명 이상 청원이면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정책 발의를 약속한다든지와 같은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줘야 한다. (중략) 당 정책 보고서에 정리되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 O-question⁴⁶⁾

- 기술과 사회를 주제로 한 오픈랩은 웹2.0의 참여·공유·개방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확장가능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온라인 오픈랩으로 기획·구성함.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5개의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스카이프를 듣는 방식을 실험했다가 서면 인터뷰로 변경함.
- 질문 플랫폼인 식스 퀘스천(sixquestions.co)을 변형한 방식이지만, 오픈랩의 '5-question'에서는 사용자의 참여까지 결합하는 프로세스로 설계하지 않음. 현 단계에서는 다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생각을 수렴하는데 중점을 둬.

46) <http://question.openlab123.kr>

-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현학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분야 사람들을 테스트베드로 진행하여 구체적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으로 설계함. 질문 구성은 ‘본인 소개(0)’- ‘관심 키워드 또는 기술적인 트렌드 선정(1)’- ‘선정 이유(2)’ - ‘기술에 관한 미래 예측(3)’ - ‘이유(4)’ - ‘기대 사항/우려사항(5)’ 등 일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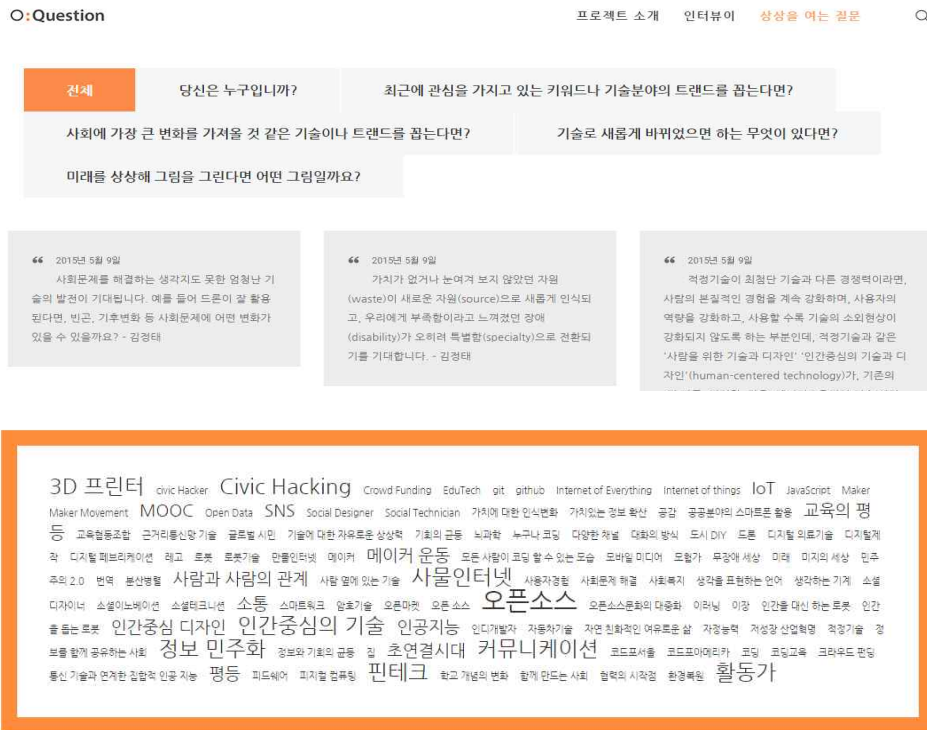


그림 3-9. O-question 사이트

■ 그룹 인터뷰

○ 소그룹 단위 인터뷰

- 제한된 시간에 참여자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질문과 키워드 답변을 요구하는 진행방식을 취함. 대략 4~5개의 질문을 던지고 참여자들이 자신이 적은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작성한 키워드를 취합·분류한 결과를 본 후 각자 의견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기후변화와 삶터·삶의 방식> <일상과 가족> <시민이니셔티브와 공공의 재구성> <사람과 협동 그리고 사회적 경제> 등 4개 랩에서 진행함. 2~3시간 동안 10명 내외 참여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듣기 위해 스케치북이나 포스트잇을 활용함. 기본적인 질문을 구성하되, 현장에서 분위기에 따라 재구성됨.(표의 질문들은 예시임. 큐레이터들이 사용시간과 참여자 유형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진행)

구분	질문안	소요시간
기후변화와 삶터·삶의 방식	내 삶터의 문제점은? 기후변화&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내 삶터를 위협하는 문제점, 내 주변에서 느끼는 환경문제 1,2,3 자신이 선택한 생활방식의 변화? 삶터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것만큼은 꼭 바뀌어야 한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텐데, 시스템 체인지. 대안은 무엇인가? 나의 선택은?	120~150분 (식사시간 포함)
일상과 가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족의 키워드를 뽑는다면? 가족과 관련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키워드 자유롭게 정리. 자기소개 및 돌봄하면 떠오른 단어 돌봄의 주체에 대해 가정, 시스템, 정부 전달체계 등 다양하게 접근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여성운동이 돌봄이라는 가치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 비가치하게 느껴지거나, 정부 투자비율이 엄청 높아졌다는 측면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좋은 사례가 있다면?	
사람과 협동 그리고 사회적 경제	자기소개와 성장의 키워드 경험담과 생각 나누기 현재 한국사회의 OOOO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시민이니셔티브와 공공의 재구성	지금 우리 세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자기를 소개하는 키워드 3가지와 함께 정리 (나는 왜 지금 분야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변화를 위해 나만의 다른 혁신의 방식과 관점은 무엇입니까? 마무리 키워드	

■ 레고시리어스플레이(LSP)

- 20년 뒤의 가족을 레고로 만들어보는 ‘소셜 픽션’(Social Fiction)의 유용한 툴로 레고시리어스플레이(이하 LSP)를 활용함. ‘질문하기 → 만들기 → 공유하기 → 반영하기’ 과정을 반복하면서 공통주제와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주제를 심화해감. 개별 작업으로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레고 모형으로 표현한 뒤 각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블록들을 하나씩 모아서 공동으로 생각하는 미래의 가족을 만들어감. 3시간 넘게 가족을 레고로 만들고 발표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감.
- 원활한 대화를 위해 인원수에 따라 조별로 나누고 사전 설명과 함께 공통 주제를 제시해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함. 집밥 플랫폼과 연계하여 가족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관심있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함. 비주얼싱킹 방법론으로 LSP가 활용되는 만큼 레고 모형을 표현 도구로 조립과 제작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지적 자극을 주는 지점이 있음. 보통 발화자가 1인칭 시점에서 얘기를 시작하지만 LSP는 자신이 만든 모델을 주어로 3인칭 시점에서 얘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객관적 거리두기를 확보할 수 있음.
- 레고 조립이라는 적극적 참여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한다는 점, 다양한 층위에 있는 사람들의 열린 생각들을 교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문제해결 프로세스에 가깝게 설계된 모형이라 문제 발견을 위한 용도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3-10 레고시리어스플레이

■ 다주체 PT Party

○ 이그나이트 방식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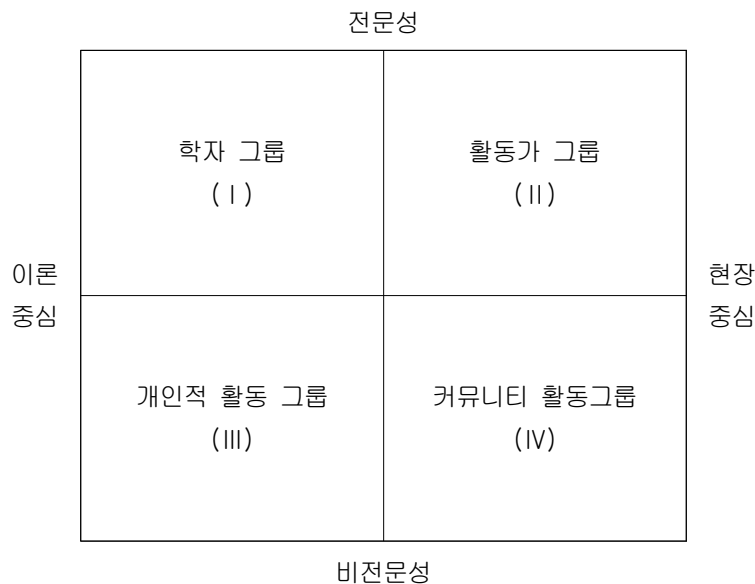
- 공급자 중심의 토지개발과 도시화가 낳은 사회문제, 저성장 양극화 사회에 따른 미래세대가 겪는 문제 등 달라져가는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가려는 새로운 주체들을 발굴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장으로 기획함.
- 주거권과 주거협동조합, 젠트리피케이션, 주민-사회적 기업에 의한 도시재생, 주민주도 마을계획, 노동권, 청년공동체, 소셜플랫폼 등 다양한 현장의 흐름과 대안적 실험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그나이트 방식을 변형한 PT Party를 진행함.
- <삶의 기획과 도시의 재구성> <미래세대> 등 2개 오픈랩에서 새로운 주체 발굴과 참여주체들간 네트워크, 경험의 교류와 확산을 목적으로 발제자당 5~10분만 허용하는 집단발제 방식으로 운영. 발표 자료는 기본 PT이외에 영상, 공연, 그림, 구연동화 등 자유로운 형태로 열어둠.
- 참여자 모두가 말하고, 모두가 듣는 방식을 취한 PT Party는 모임이 종료된 뒤에도 참여주체들간 후속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네트워킹의 장으로도 역할함.

2) 참여자

- 활발한 논의를 끌어내기 위해 주제와 연관되었거나 관심있는 이들을 대상 범위로 선정함. 주제의 관심 정도와 이해 수준에 따라 주도그룹, 활동그룹, 선도적 대중으로 구분할 수 있겠음⁴⁷⁾

47) 에버렛 로저스는 저서 <혁신의 확산>에서 혁신의 확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5가지 부류로 구분했다. 이노베이터 innovators 2.5% , 얼리어댑터 early adopters 13.5%, 선도적 대중 early

- 학술연구회, 정책 의제를 생산하거나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실천 활동을 펼치는 커뮤니티 단위와 연결하여 오픈랩 모임과 결합함. 청년허브,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아리포럼, 흥대텃밭 다리, 신중년 숲해설사 커뮤니티, 가칭) 공동체주택포럼 준비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모임 운영함.
- 집밥, 은평상상허브, 청년허브, 전주 차라리언더바 등 플랫폼 또는 플랫폼 기능을 지향하는 개인, 단체, 중간지원조직 등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관심 그룹들을 발굴·선별함. 오픈랩 참여자들의 추천 또는 연결로 후속 참여자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오픈랩 네트워크의 기반이 형성됨.
- 도시기획자그룹, 환경단체 활동가그룹, 미디어연구그룹 등 현장에서 쌓은 큐레이터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문헌/인터넷 조사를 통한 참여자 발굴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I,II,III.IV그룹(아래 그림 참고)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함.



majority 34%, 후발 대중 late majority 34%, 느림보 laggards 16%로 분류했다.

- "공사의 경계를 둘러싼 담론의 정치가 행해지는 공간"인 오픈랩에서는 누구에게나 발언권을 주고, 경청과 환대를 기반으로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닌, 참여자들간 내러티브의 소통 과정을 통해 공통된 패턴이나 함의를 분석함.

■ 참여자 특성

- 오픈랩 초기 과정에선 주제에 맞게 다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섭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중간 이후부터는 오픈랩 모임을 통해 축적된 네트워크와 오픈랩 페이스북 및 홈페이지를 매개로 홍보함. 모임 성격에 맞게 기존 플랫폼과 연계하거나 협조를 구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실제 기대보다 저조한 편이었음.
- 큐레이터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문헌/인터넷 조사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연구-저술활동,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람들을 직접 섭외하는 방식을 병행함. 활동/역할로 참여자를 분류하면,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행정관료, 사회적 기업가, 정치인, 정당 당원, 시민활동가, 교수/연구자, 중간지원조직, 개발자, 교사, 코디네이터, 자원봉사자, 직장인, 협동조합, 기획자, 디자이너, 대학(원)생, 뮤지션, 청년혁신활동가, 귀촌/농인, 청년창업자, 프리랜서, 기자, 작가 등.
- 종합해서 보면 오픈랩 참여자들의 연령대가 20~50대로, 다양한 세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음. 청년들의 자기 발언 시간을 염두한 '오픈랩: 미래세대'와 '시민이니셔티브와 공공의 재구성'의 초기 모임을 제외하고 대부분 연령대의 범위가 넓은 편이었음. 전주에서 진행된 모임 이외에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어 주로 서울에 사는 이들로 집중됨.
- 동일한 주제로 연속된 모임으로 진행될 경우 모임 참여자들에게 추천을 요청한 후 다음번 모임 때 추천받은 이들을 섭외하는 등 참여자 네트워크를 연계하기도 함.

표 35 오픈랩 모임별 토론방식과 참여자 특성

lab 이름	토론 주제	토론 방식	참여자 특성	참여자수
기술과 사회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기술	1. 질문 선정 2. 온라인 통해 질문 3. 전체 키워드 fgi 등의 방식으로 정리	기술 관련 전문가 및 각 분야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 (개발자, 교사, 기획자, 마케터 등)	약 20명 (인터뷰 20명 + 기자 4명)
가족과 일상	가족의 모습	키워드 기반 FGI/ 소셜픽션 기반 LSP	가족 관련 현장 및 전문가/ 가족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	35명
	돌봄	키워드 기반 FGI	다양한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10명
시민 이니셔티브 공공성	새로운 세대/ 정당의 미래/ 공적 자아/ 1인 가구/ IT와 정치	키워드 기반 FGI/ 1:2 대면 인터뷰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드는 사람들, 실제 정치에 관여하는 청년세대, 공적 커뮤니티 관여자, 1인 가구 관련 현장 경험자, 정치 관련 IT 프로젝트 진행	약 25명/ 인터뷰 3명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사회혁신가 성장/ 사회적 금융	키워드 기반 소셜다이닝	30대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회적 금융의 경우	약 20명
청년	일상 문제	의제 지형 파악을 위한 이그나이트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단체, 사회적 기업, 영리기업 등 다분야 활동그룹 참여	21명
도시	도시(개발)담론	의제 지형 파악을 위한 이그나이트	주민주도형 도시개발/성장을 목표로 활동하는 도시기획자들 네트워크	150여명
	도시와 토지	이슈 생산형 전문가토론	공동체주택, 토지임대부 등 새로운 흐름에 대한 진단과 분석	10명
시민이니셔티브	시민 이니셔티브	키워드 기반 FGI/ 대면형 델파이기법	정책집행자, 정치학자, 빅데이터 전문가 등 행정, 정치, 미디어 전문가들이 현상 분석과 미래예측을 함.	6명
치유와 복지	치유와 복지	이슈 생산형 FGI/ 소셜다이닝	사회복지사, 관련 중간지원조직, 공공병원장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대안을 강구함.	11명
기후모임	기후변화와 삶터, 삶의방식	키워드 기반 FGI형 소셜 픽션/소셜다이닝	전문가 커뮤니티부터 기후 관련 관심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문제 진단과 미래 예측, 대안을 모색함.	35명
한반도 사회경제연구회	한반도 경제	문제 발견 및 대안모색을 위한 전문가토론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행정학, 경제학 등 다분야 학자들이 문제진단 및 해결방안을 제시, 상호토론을 통해 현실적 대안 강구	40여명

4. 종합제언

■ 오픈랩의 한계와 기대효과: ‘사회적 의제 플랫폼’

- 오픈랩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일상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 양상과 흐름을 포착하는데 목적을 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일상)”, “예측 가능한 또는 대비해야 할 문제들은 무엇인지”,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이상/상상)” 등 오픈랩의 화두를 9개의 카테고리에 연결지어 전문가, 생활인들의 ‘열린 답’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음.
- 구체적인 ‘이슈’나 특정 현상, 문제에 대한 공동의 집단지성을 조직하는 과정이라기보다 개인의 삶 속에서 사회와 사회변화를 고찰하는 사고의 환기 과정으로 진행됨.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체계와 ‘뉴 노멀’로 받아들여지는 지점들을 끄집어내는데 질문을 어떻게 설계해야하는지가 관건이었음.
- 이념이나 명분, 당위성, ‘어떠한’ 정체성을 요구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열린 질문’에 따라 ‘열린 답’ ‘풍성한 답’ ‘흥미로운 답’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됨.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촉매제 역할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열린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내는데 있음. 파일럿으로 진행된 오픈랩은 가능성만 남겨둔 미완성 상태이며, 질문 설계는 다음 과제로 남겨짐.
- 이번 단계에서는 오픈랩은 ‘열린 답’을 듣는 곳, 즉 다양한 의견을 듣는 ‘사회적 의제 플랫폼’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음. 오픈랩의 진행 구조는 주제(또는 카테고리)의 질문에 대한 관심있는 생활인그룹과 전문가들이 공평한 발언권으로 자기 생각을 나누고, 관심그룹들의 일상적 생각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더해지는 깊은 대화가 진행되며 이에 대한 결과물이 온오프라인으로 공유되면서 ‘참여-개방-공유’가 선순환되는 ‘플랫폼’의 기대 가능성을 시사함.